

## “정치는 싸움을 말리는 것, 갈등해결에 노력” 대한민국에 화두를 던지는 충남이 되어야



### 맹 정 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약력** 충남대학교 졸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현)제 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 서해안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 △ 정치 입문 계기?

☞ 20대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고향 서산에 내려와 시민운동을 했다. 당시 서산의 시민운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시민운동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늘 고민해왔다.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시민운동 영역을 너무 좁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생활영역 모든 것이 시민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과 정치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치도 시민운동의 한 영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입문하게 되었다.

우리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갈등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정치를 하기 전에는 어느 한 편에 서서 싸움을 걸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끝이 없고, 이기는 경우도 드물었다. 정치를 잘 하면 싸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순진한 생각이  
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석유화학 공단인 대산지역  
환경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대산지역 환경문제와 관련  
하여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달랐고, 기업과 주민 간에는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을  
원망했고, 기업들은 행정기관의 감시를 두려워했다. 행정  
기관과 기업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대산지역환경협의회를 어렵게 만  
들 수 있었다. 지금 이 협의회는 대산지역의 환경을 논의  
하는 권위를 가진 협치기구가 되었다. 역지사지(易地思  
之)의 자세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을 얻었다.

### △ 교육부위원장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충남교육은 지금 변화가 화두이다. 역대 교육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낙마하면서 충남교육이 큰 위기  
를 겪었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충남교육  
의 최대 화두였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열  
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와 경중을  
가려 살림도 알뜰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저는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학창 시절 저에게 관심  
을 보여 준 교사의 과목 점수가 높았다. 교육과정이나 환  
경도 분명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다. ‘힘  
들지? 그래 함내자!’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선  
생님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 서산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충남도와 서산시는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대산공단에서 1년에 납부하는 국세가 약 4조원, 반면 지방세는 국세의 1%인 400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대신 연장은 어찌 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서산의 경우 자동차산업을 클러스터화 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서산에는 모닝과 레이를 생산하는 동희오토가 있지만, 나이가 기아나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야 고용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서산은 넉넉한 곳이다. 일자리가 많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 이를 바탕으로 한 넉넉한 복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정한 행정은 어느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웃 사람들이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좋아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충남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라는 지역적인 범주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화두를 던지는 연구원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구나 갯벌 생태의 복원, 발전소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위한 3농혁신,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대담 : 충남연구원 김찬규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